

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국 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3 교시 전공 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김 교사: 오늘 교사 연구회 모임 주제는 텍스트 수준의 설정 방법입니다. 텍스트 수준이 학생들 수준에 맞아야 교수·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최 교사: 텍스트 수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양적 평가 방법인 이독성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어휘의 등급, 문장의 (㉠), 문단의 구조 등을 수치화하여 텍스트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문장의 (㉡)은/는 문장의 길이를 고려하면서, 문장의 기본 형식에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내포절이나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하여 문장의 난이도를 비롯한 텍스트 난이도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 교사: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질적 평가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교사가 글을 정성 평가하여 세밀하게 적정 학년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평가자 간 (㉢)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따라 동일한 텍스트를 서로 다른 수준으로 평정한다면 텍스트 난이도 설정 결과에서 (㉣)을/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 ㉡에 들어갈 말을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2점]

(가)

嗟爾凌雲姿	아! 너는 구름을 찌를 듯한 자태로
如何生路傍	어찌 길가에 태어나
托根未得所	뿌리내리되 적절한 곳 얻지 못하여
幾年經風霜	여러 해 동안 풍상을 겪었던가?
病葉已凋殘	병든 잎 이미 시들었지만
老幹猶昂藏	늙은 가지는 아직도 꾀꾀하구나
幸免斧斤侵	다행히 도끼질은 면했지만
顧非充棟樑	동량의 재목이 될 수는 없으리
庶可盡天年	아마도 천수를 누릴 수는 있을 테니
不才還無傷	재목이 아니어서 다칠 일은 없겠구나.

- 남응침, 『고송(古松)』 -

(나)

녹이(綠駟) 상계(霜蹄) 역상(檣上)에서 늙고 용천(龍泉) 설악(雪鑿) 갑리(匣裏)에 운다
장부(丈夫)의 혜은 뜻을 속절업시 못 이르고
귀밧테 흰 털이 놀니니 글을 설워호노라.

- 김천택, 『(진본) 청구영언』 수록 -

<보 기>

(가)와 (나)는 조선 시대 중인층에 속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인재의 사회적 진출을 제한하는 신분제의 모순과 그에 따른 울분을 노래하고 있다. 먼저, (가)의 ‘구름을 찌를 듯한 자태’와 (나)의 ‘녹이’, ‘상계’, ‘용천’, ‘설악’ 등은 화자의 빼어난 능력을 가리킨다. 또한, (가)의 ‘(㉠)’은/는 ‘풍상’을 겪게 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나)의 ‘역상’과 ‘갑리’는 유능한 존재를 가뒀 놓고 있다는 점에서 작가 자신의 미천한 신분을 비유하는 공간적 시어에 해당한다. (가)의 ‘동량의 재목’은 이룰 수 없는 꿈을, (나)의 ‘(㉡)’은/는 이루고 싶은 꿈을 가리키며, (가)의 ‘다칠 일은 없겠구나’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씩씩한 자조가, (나)의 ‘설워호노라’에는 자신의 처지에 따른 한스러움이 담겨 있다.

3. (가)는 학생들의 토론이고, (나)는 (가)에 대해 수업 연구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토론 수행 내용(일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 컵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개인 컵은 학생들이 휴대하거나 사물함에 두고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컵을 말합니다. 학생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학교 학생의 일회용 종이컵 하루 사용량이 1인당 2.8개로, 전국 평균 1.3개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의 종이컵 사용량이 많은 것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용한 종이컵은 재활용률이 매우 낮고, 소각 과정에서 각종 유해 성분이 발생합니다. 순간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태도로 인해 우리 학교의 종이컵 사용량 문제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개인 컵 사용 의무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학생회 조직을 통해 학급 단위로 관리·감독하면, 방안 실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컵 구입에 따른 학생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학교 예산으로 전교생 개인 컵을 구입해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컵을 사용하면 자원을 절약하고 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인식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략) ...

사회자: 이어서 반대 측 제2 토론자께서 반박해 주십시오.

반대 2: 찬성 측이 입론에서 언급한 것과 달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종이컵 사용량은 심각한 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회 조사를 분석해 보니 학생들이 물을 마시는 횟수가 특별히 많은 7~8월을 제외한 지난해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1인당 하루에 1.5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컵은 여름철 위생 문제 등을 비롯해 관리와 보관이 어렵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친환경 종이컵은 재활용률이 높고 소각 시 유해 물질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사용하면 위생이나 보관·관리 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한편 학교 차원에서 규정을 만들고 학급 단위로 관리하는 것은 실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규정을 만들려면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 주체를 학급으로 지정하면 관리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 예산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운영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개인 컵 사용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가 아니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반박이 있겠습니다.

... (후략) ...

(나) 수업 연구회 대화록

김 교사: 논제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고, 상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토론 수업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학생들의 토론 수행을 점검하고 지도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이 교사: 학생들의 입론서와 토론 녹화 자료를 보니 논제에 따른 필수 쟁점 구성이 잘 이루어졌더라고요. 특히 입론서에서 찬성 1의 ㉠ '양면 메시지 전략' 사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장 교사: 그에 비해 ㉡ 반대 측의 세부 논증 구성에서는 논증 요소와 관련해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김 교사: 맞습니다. 타당한 논증 구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도 학생들이 어려워했어요.

이 교사: 입증 책임의 원리에 따라 찬성 측은 현재 상태의 변화를 설득하고 모든 쟁점에 대해 입증해야 하지만 반대 측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음을 설득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나요?

김 교사: 그 부분은 한 번 더 설명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 교사: 이러한 점 외에 특히 ㉢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반박은 입론과 반대신문에 이어지는 최종 발언임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안내할 필요가 있겠네요.

<작성 방법>

- 찬성 1의 입론서에서 ㉠이 나타난 부분을 찾고, 그 효과를 설명할 것.
- ㉡과 관련하여 [A]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을 위해 교사가 안내할 내용을 1가지 쓸 것.

4. (가)는 '좋은 쓰기 수업'에 대한 교사 집담회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참관한 교사의 성찰 일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교사 집담회

김 교사: 좋은 쓰기 수업은 전범을 많이 접하고 따라 쓸 기회가 많은 수업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맞춤법을 틀리거나 문단 구분도 되지 않은 글을 쓰는데, 정확한 글을 쓸 수 있도록 글의 기본적 형식에 대한 학습과 숙달을 강조해야 해요.

이 교사: 공동체의 합의가 글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익히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쓰기 수업은 공동체 안에서 담화 관습을 내면화하게 하는 수업이에요.

서 교사: 텍스트는 선행 저자와 후행 독자 간의 대화적 관계에서 의미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동 창작물로 볼 수 있어요. 주제, 독자, 필자가 상호 작용을 하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글쓰기 수업이 좋은 쓰기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하 교사: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개인의 사고 과정이에요. 좋은 쓰기 수업이라면 학생들이 다양한 쓰기 전략을 익혀 쓰기 과정에서 목표 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해요.

(나) 성찰 일지

3월 00일
 ... 학생들에게 모범 글들을 나눠 주었다. 그중 마음에 [A] 드는 글을 골라 분석도 하고, 단어와 문체, 구조 등을 모방하게 하였다. 다 쓴 글은 오류도 수정해 주었다. 이를 통해 어떤 학생들은 명료한 글을 쓰게 됐지만 일부는 반복되는 쓰기 연습을 지루해했다. 다음 수업 때는 ...

5월 00일
 ... 독자를 고려해 쓰기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B] 과정별로 자유 연상이나, 다발 짓기, 내리 쓰기 같은 활동을 수행할 때 학생들이 유용하다며 열심히 참여했다. 그런데 고쳐쓰기까지 하고 제출된 결과물은 그다지 ...

7월 00일
 ... 주제 관련 다양한 관점의 읽기 자료들을 나눠 준 뒤,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 쓰도록 했다. 또 학생들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에 초고와 ㉠ 자신의 작문 과정에 대한 반성적 텍스트를 작성하여 올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독자가 되어 모든 글에 ㉡ 피드백을 포함한 비평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통하게 하였다. 이는 쓰기 수행을 평가와 연결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여러 가지 쓰기 평가의 방식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C] 수정 후 제출된 글에서는 내 의도대로 학생들이 자료를 읽으며 접했던 목소리들과 비평 댓글에서 접했던 독자들의 목소리들이 다성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공동체의 담화 방식을 내면화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들과 교섭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대화적 글쓰기였다. ...

11월 00일
 오늘 집담회를 보고서 그간의 쓰기 수업을 돌아보았다. ... (중략) ... 이렇게 계속 여러 관점들을 탐색하면서 쓰기 교사로서 성장해 나가고 싶다.

<작성 방법>

- [A], [B]에 반영되어 있는 작문 이론과 가장 가까운 관점을 지닌 교사를 (가)에서 찾아 각각 쓸 것.
- '독자'에 대한 [B]와 [C]의 관점을, 차이를 중심으로 각각 서술할 것.
- 평가 주체의 측면에서 ㉠, ㉡의 차이를 쓸 것.

5.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중세 국어의 '-어라/-아라'와 '-거라'는 명령문을 형성한다는 문법적 기능은 현대 국어와 같으나 그 구조와 분포는 달랐다.

- | | |
|--------------------------|--------------|
| (1) ㄱ. 阿難(아난)아 내 훈 말 드러라 | <월인석보 10:21> |
| 나. 너희 아라라 | <석보상절 23:45> |
| 다. 네 도히 잇거라 | <변역노걸대 하:72> |

(1)에서 확인되는 중세 국어 '-거라'와 '-어라/-아라'는 선어말 어미 '-거-/어-'와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한 표현이므로 그 분포는 선어말 어미 '-거-/어-'와 같이 ㉠ 선행 용언의 종류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어라'와 '-아라'는 ㉡ 앞 형태의 음운 환경에 따라 교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2) ㄱ. 니 말 듯거라 | <남원고사 1:20> |
| 나. 자거라 | <한불자전 530> |
| 다. 서거라 보즈 | <춘향전 7> |
| 르. 이제 잠간 자고 쉬여라 | <성경직해 4:29> |
| ㅁ. 옷 넘어라 | <남원고사 3:41> |
| ㅂ. 안자라 흥니 | <울병연행록 9:10> |

(2)의 19세기 국어 '-어라/-아라'와 '-거라'는 선행 용언의 종류에 따른 결합 양상이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어라'와 '-아라'의 교체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정연했다. '-어라/-아라'와 '-거라'의 분포 변화 결과, '-어라/-아라'와 '-거라'는 현대 국어에서 문법적 의미에 큰 차이 없이 공존하게 되었다.

<작성 방법>

- (1), (2)에서 '-거라'의 결합 조건을 ㉠의 측면에서 각각 쓸 것.
- (1), (2)에서 '-어라'가 쓰인 어절을 모두 찾아 쓰고, 각 활용 형에서 ㉡에 따른 결합 양상을 설명할 것.

6.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앞의 줄거리] D 국민학교 앞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는 강 씨는 교묘한 연기력과 상술로 아이들의 인기를 끌며 돈을 벌고 있다. 그는 그런 자신에게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어느 날 편입해 온, 성적은 형편없지만 '만물박사'로 불리는 소년에게 원판 돌리기 게임에서 패배한 뒤 그 소년을 이기기 위해 새로운 주사위 게임을 고안한다.

강 씨는 아침하듯 웃었다.
 “돈이 없어요.”
 그 소년은 왼쪽 손으로 책가방 끈을 비비 꼬기도 하고 그것을 빙빙 돌리기도 하면서 대답했다.
 “괜찮다, 그냥 하렴.”
 갑자기 그 아이는 난해한 웃음을 낄낄 웃었다. 그리고는 터덜거리며 가게 앞으로 다가왔다. 강 씨는 가슴이 긴장으로
 [A] 죄어드는 것을 의식했다. 소년은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한 닢 꺼냈다.
 “그냥 한번 하라니까...”
 강 씨가 주사위를 손에 쥐어 주자, 아이는 귀찮다는 듯.
 “난 공짜로 안 해요.”
 하곤 책가방을 놓았다. 좋아, 꼬마야, 강 씨는 속으로 외치며 일 원을 받아 넣었다. 마음대로 해 봐라. 강 씨는 투정하는 어린애처럼 억지를 부렸다.
 소년은 잠시 주사위를 들어 불빛 아래에서 그 번호가 제대로 육 번까지 씌어 있는가를 확인했다.
 그 아이는 검사가 끝난 후 컵을 집어 들고 주사위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흔들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캐러멜과 드롭스를 삼 번과 육 번에 배치했다. 그 행동은 마치 흔들고 배치하는 과정에 익숙한 숙련공의 모습 같았다. 오랫동안 그런 일만 해 온 듯이 추호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고 그의 행동은 시계 초침처럼 재빠른 것이었다.
 강 씨는 뜨거운 침을 삼키며 컵을 쥐었다. 그리고 가없게도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뒤집었다. 농도 짙은 긴장 속에서 그는 소년이 천천히 삼 번 위에 놓인, 일 원의 십 배인 포도 캐러멜을 사마귀 가득한 손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주사위는 삼 번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B] 그날 밤 강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싸구려 술집으로 들어갔다. 오랫동안 끊었던 술이었다. 한밑천 잡을 때까지 절대 멀리하려고 작정했던 술이었다. 술이 취해 오자, 그는 마구 주먹을 휘둘러 술집을 온통 부숴 버리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그의 왼손은 피난 시 부딪가 노무자 판에서도 정평이 있었다. 누구든 그가 술이 취하면 상대하려 들지 않았다.
 강 씨는 자신의 왼손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무수한 상흔(傷痕)을 보았다. 갈증과 적수를 부숴뜨린 근육 덩어리. 그가 가진 것이라곤 도대체 이 주먹 외에 무엇이 있었든가.

... (중략) ...

그날 저녁, 그 선병질*적인 편입생 꼬마와 그 또래의 친구는 같이 집 쪽으로 걷고 있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이런 천재적인 소년과 같은 동리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눈치였다. 더구나 이 혈색 나쁜 소년은 아까부터 사탕은 한 알도 먹질 않으며 자기에겐 밀어 대는 것이 아닌가. 아마 단것을 먹으면 이빨이 아픈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제멋대로 생각해 가며 사탕을 먹을 때였다. 갑자기 그 공부 못하는 소년이 얼굴을 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애, 그 털보가 내일부터는 뭘 할까?”
 [C] “뭘 하긴 뭘 해. 그대로 장사하지.”
 “아니야.”
 소년은 고개를 떨구었다. 고독한 승리가 아이의 작은 몸 위에 엄청날 정도로 무겁게 올려졌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옷을 입은 막내둥이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소년의 걸음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채색된 상가가 지나갔다.
 “그 털보는 죽을 거야.”
 “뉘라구?”
 “죽어 버릴 거야.”

사탕을 먹던 친구는 갑자기 이 소년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자 이 꼬마 친구는 공연히 겁이 나서 입안의 사탕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행복과 외면한, 지나치게 퇴락한, 집까지 가는 그 선병질적인 아이의 걸음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 최인호, 「모범 동화」 -

* 선병질: 피부생명의 경향이 있는 약한 체질. 또는 신경질.

(나)

최인호의 1970년대 소설에는 ‘나르시시즘’이나 ‘동일시’ 개념으로 분석 가능한 인물이 등장한다. ㉠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아는 손상된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손상을 입힌 타자를 굴복시킴으로써 우월성을 확인받고자 한다. 반면, 동일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그 대상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간주한다. 그러다가 동일시의 대상이 무너지면 그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에 ㉡ 반성적 자아가 발현되기도 한다.

<작성 방법>

- ㉠을 참고해 [A]에 드러난 ‘강 씨’의 욕망을 쓰고, ‘강 씨’의 자아가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 행위를 [B]를 참고하여 쓸 것.
- [C]에서 ㉡을 알 수 있는 ‘소년’의 행위를 쓰고, 그것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을 찾아 쓸 것.

7.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중세 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를 사용하여 부사어를 형성하는 방식은 현대 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나랏 말쓰미 中國(중국)에 달아(國之語音이 異乎中國호야)
 <훈민정음언해 1>

(2) 살며 주그며 가며 오미 밤나지 곧호시니라
 (生死去來猶如夜旦) <월인석보 18:33-34>

(1)의 부사격 조사는 현대 국어까지도 그 형태가 이어지지만, 현대 국어와 용법 차이가 확인된다. (2)의 부사격 조사는 다른 자리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지 않고 (2)와 같은 특정한 환경에서 부사격 조사로 쓰인다.

<작성 방법>

- (1)의 부사격 조사를 쓰고 현대 국어에서의 쓰임과 다른 특성을 서술어와 관련하여 설명할 것.
- (2)에서 부사격 조사의 특성이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을 서술어와 관련하여 쓸 것.

8.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국어의 문장을 분석하는 관점은 크게 형식적 범주를 중시하는 형식적 관점과 기능적 역할을 중시하는 기능적 관점 두 가지로 나뉜다. 대개 형식적 관점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간혹 기능적 관점이 더 유용한 경우가 있다.

(1)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

(1)의 밑줄 친 부분은 형식적으로 ‘그가 나를 사랑하기’라는 명사절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1)의 밑줄 친 부분 전체가 기능적으로 절의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중시하면 ‘-기에’를 ‘-어서’와 같은 연결 어미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즉 ‘-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결합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연결 어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어사전에서는 기능적 관점에 따라 ‘-기에’를 연결 어미로 등재하고 있다.

<자 료>

- ㉠ 내가 지금 먹는 것은 엄마의 특별 요리이다.
- 나는 ㉡ 그가 이곳에서 농사짓기를 희망한다.
- 나는 ㉢ 그가 이곳에서 농사짓는 것을 희망한다.

<작성 방법>

- ㉠, ㉡이 각각 ㉢과 유사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 ㉢을 형식적 관점과 기능적 관점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9. 다음을 읽고, <교수·학습의 흐름>을 고려하여 교사의 지도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학습 목표 : 시는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 수업 제재

(가)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 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봄비다.

- 박용래, 「저녁 눈」-

* 말집 : 추녀를 사방으로 뺨 둘러 지은 네모 모양의 집.

(나)

박수 소리. 나는 박수 소리에 등 떠밀려 조희단 앞에 선다. 운동화 발로 차며 나온 시선, 눈이 많아 어지러운 잠자리 머리. 나를 읊아 매는 박수의 낙하산 그물, 그 탄력을, 툭, 끊어 버리고 싶지만, 아랫배에서 악식*으로 부글거리는 어머니. 오오 전투 같은, 늘 새마을기와 동향으로 나부끼던 국기마저 미동도 않는, 등 뒤에 아이들의 눈동자가, 검은 교복에 돋보기처럼 열을 가한다. 천여 개의 돋보기 조명, 불개미 떼가 스물스물 빈혈의 육체를 버리고 피난한다.

몸에서 팽그르 파르란 연기가 피어난다. 팽이, 내려서고 싶어요. 둥그런 현기증이, 사람털미가, 전교생 대표가, 절도 있게 불우 이웃에게로, 다가와, 쌀 포대를 배경으로, [A] 라면 박스를, 나는, 라면 박스를, 그 가난의 징표를, 햇살을 등지고 사진 찍는 선생님에게, 노출된, 나는, 비지처럼, 푸석푸석, 어지러워요 햇볕, 햇볕의 설사, 박수 소리가, 늘어지며, 라면 박스를 꺼안은 채, 슬로비디오로, 쓰러진, 오, 나의 유년!! 그 구겨진 정신에 유릿조각으로 박혀 빛나던 박수 소리, 박수 소리.

- 함민복, 「박수 소리 1」-

* 악식 : 맛없고 거친 음식. 또는 그 음식을 먹음.

▣ 수업 참고 자료

정형 율격은 규칙적 반복을 통해 드러난다. 글자 수나 음보 등을 반복함으로써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질서에 기반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자유시는 이러한 외적 규율에서 벗어남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창출한다. 현대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의 활용, ㉠ 행과 연의 배치를 통한 휴지의 활용 등을 통해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분행을 하지 않는 산문시의 경우는 통사적 구문의 조정을 통해 시어 배열의 묘(妙)를 얻거나, ㉡ 휴지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여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시를 개성적으로 창조하기도 한다.

<교수·학습의 흐름>

차시	교수·학습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 구성 요소 이해하기 • 시의 구성 요소와 작품 전체 간의 유기적 관계 이해하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에 드러난 율격과 효과 파악하기 • (가)의 시행 배열과 관련한 여백의 효과를 이해하고 시상 전개 특징 파악하기 • (가)의 구성 요소가 눈 내리는 겨울 저녁의 애상적 정조와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음을 파악하기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문시로서 (나)의 형식상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 (나)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 (나)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 축하의 의미와 구별되는 '박수 소리'의 의미 파악하기

<작성 방법>

- ㉠을 고려하여 (가)의 시행 배열상의 특징을 쓰고, ㉡을 시상 전개상 변화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이미지의 종류 측면에서 서술할 것.
- ㉢, ㉣을 참고하여 [A]에서 두드러지는 형식상의 특징과 화자의 정서를 각각 서술할 것.

10.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삼청동리(三清洞裡)의 점은 한낱 구름 되어
 바람의 홀리 느라 자미궁(紫微宮)의 느라올라
 옥황(玉皇) 향안전(香案前)의 지척(咫尺)의 나아 안자
 흉중(胸中)의 짜힌 말씀 쓸커시 스로리라
 어와 이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의 느저 나니
 황하수(黃河水) 물다만는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ㄴ이업고
 가 태부(賈太傅)의 녀시런가 한숨은 무스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落)하니
 백구(白鷗)와 버디 되어 흙피 늘자 흐엿더니
 어루는 듯 피는 듯 늬의 업슨 님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쉼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니움 절너 님의 옷슬 못 흐야도
 바다 ㄴ튼 님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갑프리라
 백옥(白玉) ㄴ튼 이내 ㄴ음 님 위호여 직희더니
 장안(長安) 어제밤의 무서리 섯거 치니
 일모수죽(日暮脩竹)의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홀샤
 ... (중략) ...

<작성 방법>

- ㉡과 ㉣에 해당하는 시행 1개를 (가)와 (나)에서 각각 찾아 쓸 것.
- (가)에서 ㉢이 누구인지 밝히고, (가)가 ㉢과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서술할 것.

북풍(北風)의 혼자 서서 ㄴ업시 우는 뜻을
 하를 ㄴ튼 우리 님이 전혀 아니 슬피시니
 목란(木蘭) 추국(秋菊)이 향기(香氣)로운 타시런가
 첩여(婕妤) 소군(昭君)이 박명(薄明)흔 몸이던가
 - 조위, 「만분가」 -
 *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음을 의미함.

(나)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호오
 말씀을 드러하니 설운 줄 다 모를쇠
 인년인들 혼가지며 니별인들 갓탈손가
 광한전 빅옥경의 님을 피셔 즐기더니
 니리롤 흐엿거니 지앙인들 업슬손가
 히 다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워 마소
 엿더타 니너 몸이 견홀 디 전혀 업니
 광한전 어디머오 빅옥경 니 아던가
 원앙침 비취금의 피셔 본 적 ㄴ히 업니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로 님 길고
 질숨을 모르거니 가무야 더 니롤가
 ... (중략) ...
 누어도 심각이오 안즈도 심각이라
 아므도 이 심각은 일각을 못 이즐쇠
 - 김춘택, 「별사미인곡」 -

(다)

고려 속요 「정과정」으로부터 시작된 유배 시가의 전통은 조선에 와서 유배 가사로 이어진다. 조위는 ㉠ 무오사화라는 큰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으며, 김춘택은 ㉡ 평생에 걸쳐 벼슬한 적이 없었으나 옥사에 여러 차례 관여했다는 혐의로 유배를 가게 되어, 각각의 유배지에서 작품을 창작했다.
 유배 가사에는 ㉢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과 ㉣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작품에 따라 그 비중이 단일하지는 않다. 어떤 작품에서는 전자가 뚜렷이 포착되는 반면, 어떤 작품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내용 대신 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차이는 작품 안에 나타나는 ㉤ 천상의 존재가 누구인가의 여부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11.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한미 웃고, 즉시 니랑(李郎)의게 가 니르디, “진쥬 절인의 거시 분명히기로 드러다가 집의 두엇시나 얼굴이 추비하고 못쓸 병이 여러 가지니 낭군은 아라호소서.”

니랑 왈, “한미는 부절업시 말을 말나. 그 병이 날로 말피암아 난 병이니 엇지 박디호리오?”

한미 왈, “그러나 낭군이 맞당이 육례(六禮)로 맞지 아니하면 허치 아니호리이다.”

니랑 왈, “드시 니르지 말나.”

한미 왈, “그러하면 부피 알으시느니잇가?”

니랑 왈, “부피 업호시니 고(告)치 못하고 고모피 고히여 주혼(主婚)호시리니 그리 알나.”

한미 왈, “송치(送綵)는 금월 십스일이오 전안(奠鴈)은 십오일이 길호나이다.”

니랑이 황금 빅 냥을 주며, “혼슈의 보터라.” 호거늘 한미 왈, “혼인은 칭가지유무(稱家之有無)*라.” 호고 맞지 아니호더라.

원너 니랑의 고모는 복야(僕射) 여흥의 부인이라. 일즉 과거 호여 즈너 업스미 선을 양혹호여 기출(己出)궂치 호더니 일일은 부인이 성드려 니르디,

“너 거야(去夜) 몽중의 옥조를 타고 광한전의 드러가니 혼 선녀(仙女) 니르디, ‘너 스랑호던 소아를 그더를 쥬노니 며느리를 삼으라.’ 호미 너 너를 심각호고 그 너즈를 드러와 뵈니 네 일정 숙녀를 취홀가 호노라.”

니랑이 깃거호여 드되여 즈기 몽스와 한미 전후스를 고히니 부인 왈, “니 날이 가장 이상호나 네 부친 성되 지엄호나 니 스스로 감당호리라.”

싱이 디회호여 혼기(婚期)를 고히되, 부인 왈,

“네 부친이 네법을 숭상호여 자전(自專)호는 비 업스니 ㉠ 너의 불고이취(不告而娶)*호는 줄 알면 반드시 죄칙(罪責)이 중호리니 너는 집의 가 있다가 그날 당호거든 니 집의 와 츠려 가되 혼구(婚具)는 니 준비호리라.”

… (중략) …

츠시 부인 당 시(張氏) 꿈의 숙향이 압희 와 울며 고포디, “부친이 날을 죽이려 호거늘 모친이 엇지 구치 아니호시느뇨?”

부인이 놀나 씨여 시비로 호여곰,

“상공이 무슨 좌괴(坐起)*를 호시는가 알아 오라.”

시비 회보 왈, “상공이 니상셔 칙녕(勅令)으로 그 덕 며느리를 죽이려 호시더이다.”

당 시 놀나 밧비 티슈를 청호여 고포디,

“너아를 일흔 지 십여 년의 혼 번도 꿈의 죄는 날이 업더니 앓가 몽중의 숙향이 울며 여츠여츠호오니 가장 고이호지라. 금일 좌괴는 무슨 날이니잇가?”

티슈 왈, “니위공(李魏公)의 아들이 숙향의게 고히(蠱惑) 호여 부모를 속이고 장가 들어서미 니게 기별호여 죽이라 호엿기로 좌괴호는이다.”

[A]

당 시 왈, “몽스(夢事) 고이호고 난중(亂中)의 부모를 일혔다 호니 그 근맥(根脈)*을 물어보겠스오니 아직 정지 호소서.”

티슈 응낙호고 하령호여 “가두라.” 호니 낭지 섬섬약질(纖纖弱質)의 큰 칼을 쓰고 누슈(漏水) 만면(滿面)호여 옥(獄)의 들며 문 왈, “이곳이 어디뇨?” 옥졸이 답 왈, “낙양 옥중이라. 니일은 죽을 거시니 잔잉타.”

호거늘 낭지 헤오되, ‘니랑이 나의 죽는 줄을 모를지니 소식을 뉘 전호리오?’ 호고 잇통호더니 날이 붉으미 문득 청죄(靑鳥) 나라와 울거늘 낭지 적습 스미를 썬혀 손가락을 씨물어 피를 니여 편지를 썬 발목의 띠여 니랑피 전호라 경계호니 청죄 두 번 울고 나라가니라.

- 「숙향전」(경판본) -

- * 칭가지유무(稱家之有無): 혼인을 함에 있어 집의 가난하고 넉넉함에 맞춰 해야 함.
- * 불고이취(不告而娶): 부모께 고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맞이함.
- * 좌괴(坐起): 관청의 우두머리가 출근하여 일을 잡아 행함.
- * 근맥(根脈): 일이 생겨난 유래.

(나)

「숙향전」은 숙향이 겪은 현실적 고난을 도선적(道仙的) 요소와 결합하여 환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 숙향이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계(異界)의 존재가 나타나 구해 주거나 현실계 인물이 도와준다. 그러나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축은 숙향의 현실적 고난에 있다. 특히 봉건적 신분 관계에 의해 남녀의 애정을 억압하는 현실적 계기들이 사건 전개에 주 동인으로 작동한다.

<작성 방법>

- ㉠의 이유를 (나)를 참고하여 쓰고, ㉠의 결과로 발생한 사건을 서술할 것.
- [A]에서 ㉠의 예를 2가지 찾아 쓰되, 조력자와 그 구체적인 행위를 밝혀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